



4면

서노송예술촌에 들어선 '뜻밖의 미술관'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음 5월 12일) 제280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완주에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 '첫 삽'

'도내 탄소기업 선도' 비나텍, 건립 착공식... 커패시터 제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에 860억 투자·120명 일자리 창출

도내 탄소기업을 선도하는 비나텍(주) (대표 성도경)이 '수소연료전지'와 '커패시터'를 제조하는 공장 건립 착공식을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 두세훈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주요 협력기업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해 공장 착공을 축하하며, 향후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비나텍(주)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지 5면 5,741㎡(약 1만 6,000평) 부지 내 공장건물을 본격 착수하고, 오는 2024년까지 860억원을 투자해 6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완주 제2공장은 전주 제1공장 이후 건립하는 공장으로서, 전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커패시터는 물론 수소연료전지도 추가로 확

대할 예정이다.

커패시터는 전하(전기)를 충전하는 부품으로, 비나텍(주)은 일반 커패시터보다 에너지 저장용량이 100만 배 이상 큰 슈퍼 커패시터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완주 제2공장에서는 슈퍼 커패시터 외에도 친환경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도 생산할 계획인데, 이는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완주군의 주력산업에도 부합한다.

비나텍(주)은 지난 1999년 설립,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인 슈퍼 커패시터와 연료전지를 전문으로 생산·제조하고 있으며, 탄소관련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소부장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비나텍(주)은 탄소 관련 최고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도내 탄소기업 최초로 코스타에 상장된 기업으로, 지난 2011년 경기 군포에서 전북도로 이전한 뒤 전북 탄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비나텍(주)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 착공식이 지난 18일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2번째)와 성도경 대표(3번째) 등 참여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전 후 비나텍(주)은 전북도의 지원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생산성을 높인 결과, 일반 커패시터보다 에너지 저장용량이 100만 배 이상 큰 슈퍼 커패시터를 개발·생산하게 됐다. 성도경 비나텍(주) 대표는 "이번 완주

제2공장 착공은 비나텍(주)의 질적 양적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완주군과 전북도의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믿음직

한 비나텍(주)이 계속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유호상 기자

'제철제맛' 수박 조기 2000개 완판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이 함께 추진한 거시기장터 제철농산물 관측 '제철제맛' 제2탄 수박 편이 조기에 2,000개 수량 완판을 달성했다.

'제철제맛' 기획전은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한 품목씩 10월까지 진행,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 타지역 소비자들에게 전북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 5월 완판을 기록한 '김제 수미 햇감자'에 이어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익산 수박 편은 준비한 2,000개 물량을 4일만에 판매 완료했으며, 약 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 수박 편에는 소비자에 넌농협은행 카드충구환인을 포함, 다양한 할인 혜택과 상품하고 12mix 이상의 고당도 수박편을 선별·판매해 고객들의 입맛을 충족시켰다.

자체 제작한 스티로폼 상자 사용, 무료배송으로 집에서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했으며, 택배 파업의 상황에서 배송 지연에 상 및 불가지역을 실시간 확인하고, 해당 고객들에 일일이 연락하는 등의 적절한 응대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유호상 기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전주·군산·익산시, 완주 이서면 제외 모임 최대 8명까지 허용... 내달 4일까지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시범 적용하고, 5일부터 시행 예정인 본격적인 개편안에 대비한 방역관리 및 점검을 강화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각 시·군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이 고려됐다.

앞서 시·군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을 결정했으며,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환자 발생 상황과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반)

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동향

정부는 7월 5일(조기 시행 가능성도 존재)부터 본격 적용되는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기존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가장 관심이 높은 사적모임 제한은 1단계 논의 중,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후 2명(18시 이전 4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조치 중심으로 제한해 운영규제를 최소화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1단계부터 6㎡당 1명 등으로 조정된다.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방역수칙

도는 이번 시범적용 지역에 1단계를 적용하며,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방지를 위해 정부안 1단계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한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로 제한(현 1.5단계 4인까지 / 개편안 논의 중)한다.

유흥시설은 종사자 포함 4명까지 제한하고, 종교시설 좌석수 50%까지, 모임·식사·숙박 금지(현 1.5단계 좌석수 30%, 모임·식사·숙박 금지 / 개편안 좌석수 50%, 모임·식사·

숙박 자제)한다.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6㎡당 1명(현 1.5단계 8㎡당 1명 / 개편안 6㎡당 1명), 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이다. (현 1.5단계 100인 이상 금지 / 개편안 500인 이상 금지)

또한 시범적용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군별 개별적인 특별 방역대책 시행 거리두기 단계 상향 및 하향에 있어서 도와 협의하며 시·군의 의견을 존중,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등 전북도 전체 상황 외에는 시군에서 개별 브리핑을 적극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개인 방역수칙 준수 중요성 증가, 행정점검 강화 이번 시범 적용으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완화되고, 각종 모임 활성화로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지역 감염 유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각자가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 주시길 당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초단체 읍면동의 이·통장과 민간 자생단체·협회의 자율 방역을 지속 시행하고 동참 확대를 촉구한다. 전북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

편(안) 시범적용으로 민생경제 활력,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우울감 극복, 본격적인 개편(안) 시행될 때까지 안정적인 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지금은 절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자"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muju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